



피지컬 AI · 로봇 산업 '전북 미래 주력 양대 축'

제조 기반 · 실증 인프라 · 기업 집적 등 갖춘 최적지
기술개발부터 실증 · 사업화까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와 로봇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피지컬AI는 현실 환경에 직접 작용하는 차세대 AI 기술로, 로봇·자율주행 등 자율시스템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조업이 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에 집중된 전북으로서는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인 셈이다. 특히 도내 제조기업은 디지털 전환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산업 재편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피지컬AI를 통한 제조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로봇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된다.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새 민금에 4,000억원 규모 로봇 제조공장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주변에는 협력사 상생형 임대공장과 기업성장센터 등 동반 인프라도 조성된다. 이에 맞춰 산업부와 연계해 2,400억원 규모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 구축을 추진해 로봇과 핵심부품의 개발부터 실증, 시험·인증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부품 기업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며, 정부 '5급3특' 성장엔진 선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이 거점으로 꼽히는 배경에는 탄탄한 제조 기반이 있다. 도내 농기계 산업은 TYM(익산)·LS엘트론(완주) 등 215개사가 집적해 2,020명이 종사한다. 이들 기업이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확보하고 올해 무인화 4단계 출시를 앞둔 만큼, 도는 AI·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활용을 묶은 '농건설계기 AX'로 자율작업 기계 상용화를 뒷받침한다. 1,066억원 규모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도 중심으로 실환경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2030년부터 무인 자율농기계 실증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율시스템을 검증할 무대도 넓다. 새만금에서 육성에 온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 환경의 물류 서비스로 구현되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달 9일에는 군산 특수화물

통관장에서 한진 전주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하브까지 이어지는 편도 118km 구간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5월 국토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유상운송 허가를 확보한 결과다. 조선은 AX실증선단과 군산조선소 대상 M.AX 실증플랫폼으로 스마트조선소·해양무인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

국가사업도 이를 뒷받침한다. 총 7,367억 원 규모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국비 5,150억 원 이내 규모 공모에 들어갔고, 완주에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실증 메타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가 건립된다. 도는 앞서 전북대와 카이스트에 기술실증랩을 구축해 도내 3개 기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고, 올해 국비 786억원을 확보했다. 피지컬AI 혁신캠퍼스까지 더해지면 기술개발부터 실증·인재양성·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갖춰진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피지컬AI와 로봇 산업은 전북 주력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해 대한민국 피지컬AI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스포츠 축제, 진안서

내달 4~6일 도민체전 · 19~21일 장애인체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

인체육대회가 진안군에서 개최된다. <관련기사 16면> 올해 도민체육대회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각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이 참가한다.

특히 올해 대회는 1964년 도민체

육대회가 시작된 이후 진안군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교통과 주차, 숙박, 음식, 환경, 안전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경기장과 주변 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대회 기간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등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은 4일 오후 7시 진안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성화 점화 등 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드론쇼와 불꽃놀이 등 특별한 볼거리와 함께 오마이걸, 10CM, 거미, 손대장이 무대에 올라 개회식의 파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개회식에서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원을 담은 특별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이만호 기자 · 진안=유태만 기자

졸업 기념 인증샷 '찰칵'



2025학년도 후기 전북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 21일 전북대에서 한 졸업생이 동료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관련기사 4면>

전북 제조업 생산 7.9% ↑... 고용 등도 회복세

자동차 · 화학제품 생산 호조... 민간소비는 부진

취업자 1만명 늘어... 수출은 20.3%로 대폭 상승

물가 상승폭 둔화... 업종별로 체감경기는 엇갈려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출과 고용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소매점 판매가 감소하는 등 민간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발표한 최근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7.9% 증가했다. 5월에는 0.7%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계절 조정 생산자수도 전월보다 4.5%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14.7% 증가한 것을 비롯해 화학제품 6.5%, 1차 금속 11.0%, 펄프·종이 10.4%, 음료 8.4%, 식료품 5.0% 등이 증가했다. 반면 비금속광물은 6.4%, 전기장비는 16.0% 감소했다.

제조업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 계절조정 출하자수도 전월보다 4.2% 상승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보다 11.2% 감소했으며, 재고율은 130.7%로 전월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민간소비는 다소 부진했다. 6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15.0% 감소했으며, 대형마트 판매는 23.3% 줄었다. 반면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15.0% 증가해 소비 부문에서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 부문은 개선됐다. 6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보다 36.1% 증가했으며 건축허가면적은 96.3% 급증했다. 다만 6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1,852호로 전월보다 158호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77호로 전월보다 66호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다소 위축됐다. 6월 기계류 수입액은 6,32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1% 감소했으며 제조업 설비투자실행률은 96.0%로 전월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은 크게 늘었다. 6월 전북지역 수출액은 6억5,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3% 증가했다. 농약 및 의약품은 8.2% 정밀화학원료는 38.8% 합

성수지는 28.3%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18.1%, 동제품은 19.6%, 농기계는 21.7% 감소했다. 수입은 4억9,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5.8%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억5,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시장도 개선됐다. 6월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명 증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3만2,000명이 늘었고 건설업에서도 1만명이 증가했다. 반면 농업·임업은 1만8,000명, 제조업은 1만 6,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4.6%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도 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감소했다.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 7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3% 상승했다. 6월 상승률 3.6%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상품 3.5%, 서비스는 3.1% 상승했으며 생활물가는 3.5% 올랐다.

▶ 2면에 계속
/오상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무주반딧불축제

2026. 9. 4 금 - 9. 12 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일원


